

## 지난 주 말씀 요약 ( 2 / 10 ) 2013

제 목 :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성경말씀 : 에베소서 5 : 5 ~ 10

어렵고 힘든 일, 난관이 있을 때에  
보통 사람은 근심 걱정하며 좌절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와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의 명절이 즐거운 날들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명절증후군이라는 가슴 아픔을 겪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명절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문 5절에서, 이런 때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 ① 음행 죄를 저지른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이성간이나  
동성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다 음행 죄이다.  
안타깝게도 명절을 전후해서 이런 죄를 많이 일어난다.
- ② 더러운 죄이다. 일반적인 더럽고 타락한 문화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채팅, 마약, 등 사람을 더럽게 하며  
타락시키는 문화가 명절 전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 ③ 탐욕이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재산 분배로 다투기도 하고  
작게는 찜깨 몇 뒷박의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의가 상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한다.
- ④ 우상 숭배하는 죄다. 전통문화라는 이름아래 잡신 미신을  
섬기고, 풍수지리, 택일, 작명, 제사 등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아무리 전통이고 고유문화라 하여도,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징벌 받을 죄악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일을 하면, 천국에서 누릴 상이  
없다.(5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그 아름답고 영광  
스러운 곳까지 가는데 막상 주님께로 받을 상이 없고 그곳에서  
누릴 영광이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또한 위의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6~7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빛”이란 성삼위 하나님을 뜻한다. (요1:1~14)  
빛은, 생명 그 자체이며 모든 생명을 생성(生成)시킨다.  
또한 생성되어 존재케 된 생명들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준다.

빛은 또한 파스한 것이며 모든 것을 밝게 한다.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할 것을 8~9절에  
말씀하셨으니 빛의 열매가 곧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다.

### 첫째, 모든 착함을 행하라.

명절에는 여기저기 오고가며 많은 사람을 만난다.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말도 착하게  
좋은 말을 하며, 원망 불평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음식을 접대하는 일도 많아  
몸으로 수고하고 힘써야 할 일도 있다. 이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착한 행동으로 솔선수범 하는 것이다.  
“나만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좋은 기회구나!” 하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착함을 행하는 것이다.

### 둘째, 의롭게 행하라.

무엇이든지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  
언행과 삶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가 없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연약한 인간들이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의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셋째, 진실하게 행하라.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된 행위는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거짓됨과 위선이 사람들에게 곧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진실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대로 하면 참되고 진실하게 할 수가  
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바르게 분별을 하고  
자신의 언행에도 잘못된 것은 그대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회개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자신도 느끼고 있는데,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며 거짓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것을 좋아하시며  
사람들도 진실하고 참된 것을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  
또 자신이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했을 때는 그 어디서나  
떳떳하고 당당하며 행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4 ( 새 찬송가 1, 10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 ◎ 예수께 여쭙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여도
-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가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 ◎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 ◎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다.

- 아 멘 -

찬 송 : 133 ( 새 찬송가 135 )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21 : 18 ~ 23 신약 18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오해와 오판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95 ( 새 찬송가 342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2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윤문석 집사 (다음 이춘희 집사)

기 도 : 최은희 집사 (다음 최명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

사 회 : 이경순 집사 (다음 이수현 집사)

기 도 : 정창주 집사 (다음 김영복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0시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 성경학교를 엽니다.

일시 : 2월 22일(금) 오전 10시. 밤 7시.

23일(토) 새벽 6시. 오전 10시.

함께 준비하고 협력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 2. 남녀 각 전도회 모임

오늘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 각실에서

예전대로 남녀 각 전도회가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3. 헌신예배 안내.

다음주 24일 오후 2시 예배는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과 예배를 위한 정성어린 준비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기준 님 부영 @

☺ 이소연 님 중흥 @

☺ 나미옥 님 주월 @

## 지난 주 말씀 요약 ( 2 / 17 ) 2013

제 목 : 오해와 오판

성경말씀 : 요한복음 21 : 18 ~ 23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 값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일이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신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요한은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베드로 자기에게만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고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오해한 것으로, 예수님 말씀의 뜻은 “요한은 어떻게 하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자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 하기 보다는, 옆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에 관심을 갖고 오해를 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이같이 인간 세상에 죄악과 불행은, 안타깝게도 오해(誤解)와 오판(誤判)에서 시작 되었고,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불행 역시 오해 오판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나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오늘 삶에서 오해와 오판에서 벗어날 믿음과 지혜를 길러 나가야 하겠다.

오해와 오판의 역사를 살펴보면,

### 1) 인류 최초의 범죄와 죽음이 오해에서 왔다. (창3:1~6)

하나님께서 축복된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이 맘대로 즐기며 누리도록 하셨지만 오직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죄가 없어 사람과 만물이 서로 소통할 때라,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이브)가 뱀과 대화하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므로 인류 최초로 범죄가 일어났고 죽음이 찾아오는 비극이 일어 난 것이다.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해 하였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오해한 것이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겠고,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바로 이해를 했더라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해가 범죄와 죽음을 몰고 온 것이다.

### 2)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오해에서 왔다. (창1~8)

가인과 아벨 형제는 아버지 아담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날 한 시 같은 장소에서 드렸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모든 인생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제가 죄 값으로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이 양을 저 대신 희생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또한 예수님이 저희 죄 값 대신 희생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양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죄는 무슨 죄, 그냥 곡식으로 제물을 바치면 되지” 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렸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벨 때문이라 오해하고,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또 오해를 하여,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이 오해로 인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 3)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심판을 받았다. (창19:14)

소돔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하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롯이 자기 가족과 사위될 자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위될 자들은, 진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오해를 하여 믿지 않으므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준비했다더라면, 멸망을 당치 않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오해를 하여 농담으로 여기므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 4) 사울은 오해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삼상22:13-19)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장군을 자기에게 반역할 사람으로 오해하여 내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떡 몇 개 준 것을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반역을 하고, 왕인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오해를 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85 인을 쳐 죽였고, 그 지역에 사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다 죽였다.

대략 살펴 본대로 오해로 인하여 수많은 죄악과 불행이 시작 됐다. 오늘날도 부부사이나 부모자녀사이, 또한 직장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도, 오해로 인해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오해로 인해 잘못된 일이 없는가? 살펴서 회개해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6 ( 새 찬송가 2, 36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 예수께 여쭙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여도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가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다.

- 아 멘 -

찬 송 : 236 ( 새 찬송가 205 )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21 : 18 ~ 23 신약 18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오해와 오판 하지 말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93 ( 새 찬송가 545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3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일 오후 예배 ( 오후 2시 ) 에스더 헌신예배

사 회 : 이춘희 집사 (다음 이성숙 집사)

기 도 : 최명희 집사 (다음 강복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요 저녁 예배 ( 저녁 7시 )

사 회 : 이수현 집사 (다음 정기화 집사)

기 도 : 김영복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년부 예배 (주일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2. 각 부서장 기도 모임

오늘(24일) 오후 예배 후 3시 30분에, 석정동에서

남녀 각 전도회장, 각 부서장, 각 구역장단들이 연합하여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3.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월 1일(금)과 2일(토)에 걸쳐 석정동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도와 함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유익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4. 목회 기도회

본 교단 목회기도회가 경기도에서 열려 다녀옵니다.

25일(월) ~ 28일(목)까지.

## 5. 금요기도회

3월 1일 금요 밤 기도회는

1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소연 님

중홍 @

☺ 나미옥 님

주월 @

☺ 주진영 님

중홍 @

## 지난 주 말씀 요약 ( 2 / 17 ) 2013

제 목 : 오해와 오판을 하자 말라  
성경말씀 : 요한복음 21 : 18 ~ 23

우리 죄 값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신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쭙었다.  
예수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오해한 것으로, 예수님 말씀의 뜻은  
“요한의 일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자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 하기 보다는, 옆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한 관심을 갖고 오해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간 역사에 죄악과 불행은, 작은 오해(誤解)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큰 불행을 몰아 왔고,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불행 역시 오해 오판(誤判)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해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신약에서 살펴보면,

1) 헤롯이 오해로 인해 수천 명의 아이를 죽였다. (마2:2-16)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 헤롯왕은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유대나라의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부터 아래로  
젖먹이들 몇 천 명을 다 죽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로 인한 크나큰 살인 죄악이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적 육신적 왕  
이 아니고, 영적 생명의 왕이시고 우주만물의 왕이신데, 헤롯  
은 예수님을 자기 자리를 넘보는 정치적 왕으로 오해를 하여  
예수님을 없애려고 이런 잔인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2) 오해로 인해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 길을 떠났다. (요6:47-66)

사람의 육신이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사람의 영적생명, 영혼도 무엇인가 먹어야 사는데, 그것은 곧  
우리 죄 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죄 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피를 믿는 것이다. 이 믿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셨다.(요6:47,54)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과  
제자들은, 예수님 육체의 살과 육체의 피를 실제로 먹어야 하는  
식인종이 돼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다 떠나갔다.(요6:66)  
이렇게 오해를 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바다 멸망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

성경 역사나 일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한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오해와 오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붙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과 사건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자기 개인 주관이나  
철학이나 이념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표준삼아서 살펴서 이해하고 분별 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이해는 오해이며 죄악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 말씀 전체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성경을 한 절이나 한 부분만 해석하고 이해하다보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직접 들은 말씀이다. 그러함에도  
베드로가 오해를 한 것이다. 성경말씀 전체 원리에 맞지 않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말씀의 원리로 보면 “요한이 죽지 않는다.”  
고, 어찌 그리 말 할 수 있는가? 창세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 원리에 비춰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멸망 받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되 전체 말씀의 원리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해석하기 때문이다.

셋째, 나쁜 상상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오해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  
이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고 선하게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나쁘고 악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게 된다.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질병 역시 오해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분별하고 이해한 것들이 사실은 오해일수도  
있고 착각 한 것일 수도 있다. 는 여분의 생각도 해야 한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한 것은 다 정확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하  
면, 이미 자신은 교만과 오류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자신도 어떤 일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상대도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해와 오판을 하기가 쉽다.

또한 상대가 나에게 대하여 오해를 하고, 나도 어떤 오해를 했다  
고 생각이 되면, 서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화해의 노력을 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야 한다.  
자신이 이해를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3 ( 새 찬송가 1, 64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 ◎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 ◎ 그가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 ◎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 아 멘 -

찬 송 : 241 ( 새 찬송가 202 )

기 도 : 목 사 ( 다음 홍의남 장로 )

성경봉독 : 목 사 : 야고보서 2 : 14 ~ 23 신약 373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69 ( 새 찬송가 218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3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이성숙 집사 (다음 윤정희 집사)

기 도 : 강복희 집사 (다음 나점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

사 회 : 정기화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임문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겨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월례 제직모임.

오늘 오후 3시 예배 후 이 자리에서  
3월 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2.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지속적인 살핌을 바라오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3. 화요 전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4.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즐거운 찬양, 진정한 기도, 은혜의 말씀, 말씀의 실천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5. 금 요 기 도 회

3월 8일 금요 밤 기도회는  
2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나미옥 님	주월 @
☺ 주진영 님	중흥 @
☺ 김영희 님	풍암 주택

## 지난 주 말씀 요약 ( 3 / 3 ) 2013

제 목 :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라  
성경말씀 : 야고보서 2 : 14 ~ 22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을 중점으로 말씀하셨고  
2장은 야고보서의 핵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시며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살펴보면  
크게 3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 1) 믿음이 바로 되지 아니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믿음이 잘못 되면 바른 신앙은 그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고  
이미 세워졌다 하여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바른 믿음은 ?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물은 빅뱅을 통한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만물  
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만  
만물을 심판하실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혹은  
다른 신이라는 것들은 풀 한포기도 만들지 못하고, 파리 한 마  
리도 움직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연 통치 아래 만물의  
생사화복과 그 생성쇠멸이 좌우된다. 이것만이 바른 믿음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천국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구원은  
돈이나 선행이나 성경 지식이나 비밀을 아는 것 등 그 어떤 것  
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미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 한다.

### 2) 말씀을 비뚤어지게 가르친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또는 철학적, 과학적, 미신적, 인본주의적으로 풀  
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본뜻을 훼손하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이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치고 믿어야 한다.

### 3)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을 받아도 행함이 없음이 문제이다.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문화와 사회상을 살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였다면 우리 주변과 사회는 훨씬  
죄악이 줄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고 배우지만  
종교적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는 면이 적고, 현실에의 타락된  
문화와 죄악의 흐름에 휩싸이다보니, 정확되어야 할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은 오히려 더러워지고 죄악이 더 판을 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옳게  
행동할 것을 실천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 믿음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행함이 없으면?

### 첫째, 아무 유익이 없다. (14절 상)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는 영, 육간에 유익이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천국복성  
이 되었다. 그렇다 해도 또한 몸을 가지고 현실 세상을 살아가  
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이 있어도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육간에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행함이 따라야 한다.

### 둘째, 구원이 없다. (14절 하)

여기 구원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복락의 구원은 받았고 누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사고와 위험한 일들  
이 도사리고 있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인간은 연약한기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역사를 힘입어야 하는데,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역사가 없어서 이런 흉악한 사건사고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일들에 휩싸여 그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한다.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고 행할 때에 은혜가  
임하며, 믿고 행할 때에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믿는다.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 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박 병 길 목사

사회 : 문정용 장로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28 ( 새 찬송가 2, 28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 그가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 아 멘 -

찬 송 : 93 ( 새 찬송가 93 )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박병길 목사 : 요한일서 2 : 6 신약 388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박병길 목사 : 자기도 행할지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31 ( 새 찬송가 240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박병길 목사

섬기는 사람들 [ 3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윤정희 집사 (다음 박선옥 집사)

기 도 : 나점순 집사 (다음 이미숙 집사)

말씀증거 : 박병길 목사(창세기 50:25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김소영 집사)

기 도 : 임문숙 집사 (다음 이성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총회의 명령으로

부산에 개척교회를 살피기 위하여 다녀옵니다.

### 2. 화 요 전 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3.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즐거운 찬양, 진정한 기도, 은혜의 말씀, 말씀의 실천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4. 금 요 기 도 회

3월 15일 금요 밤 기도회는

3 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재덕 윤안숙 님

쌍촌동 명지 @

☺ 주진영 님

중흥 @

☺ 김영희 님

풍암 주택



## 본문 말씀 요약 ( 3 / 17 ) 2013

제 목 : 명분의 존귀함과 그 축복을 알라.

성경말씀 : 창세기 15 : 24 ~ 34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3,95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이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에서가 형이며 야곱은 동생인데  
에서는 장자로서 영 육간에 큰 축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다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진 채로  
돌아오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길에서 팔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그 죽을 달라고 요청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면 팔죽과 떡을 주겠다.” 고  
말했고, 에서는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팔죽과 떡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 장자에게 보장된 영 육간에 큰 축복을 무시한 것으로  
자손 대대로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자에게 보장된 축복은 무엇인가 ?

첫째, 가문에 족장이 되는 축복이 있다. (창12:2~3, 47:7)

가문에 족장이 되어 가솔들을 다스리며 지도하는 권세가 있고  
선대 족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축복할 권세를 위임받았으며  
또한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주어졌다.

둘째, 유산을 두 배나 상속받는다. (신21:15~17)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받도록 보장 되었으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셋째, 영적 축복을 승계 받는다. (마8:10~11)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영적 축복을 조상으로부터 승계 받아  
자손에게 전수해주며,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넷째,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된다. (마1:1~2)

후손들이 잘되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가를 이루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있다.

위 네 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

사람으로서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축복인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에서는 왜 버리게 됐는가?

첫째, 장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 했다.

위 장자에게 보장된 축복은 다 장래에 될 것들이었다.

현실은 당장 배가 고프니, 장차야 어떻게 되든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축복이라 하여도 현재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도 장차 엄청난 축복이 보장돼  
있다면, 현재를 좀 희생해서 장래의 엄청난 축복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영의 축복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했다.

동물들은 물질로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어서 물질만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참 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다.

그럼으로 영혼이 축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인생이 참 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에서는 오히려 영의 축  
복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다.

잠간 있다 없어질 물질에는 영혼의 축복이 전혀 없다.

우리는 물질보다 영혼의 축복을 더 사모하고 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잠간의 만족을 얻으려 영원한 축복을 버렸다.

육신의 축복은 제 아무리 길어야 백년쯤이다.

영혼의 축복은 천년, 만년, 수천억 년에~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보장  
돼 있는 영원한 축복을 무시하고, 길어야 백년쯤 되는 육신이  
잘되는 길을 따라간 것이다. 그 결과 자신도 불행하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 자손 대대로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히12:16~17)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는 존귀한 명분이 있다.

또한 영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와 그  
에 따르는 직분을 이미 받아 놓고 있다.

에서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야곱의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택하는 대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부끄러움이 좌우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02 ( 새 찬송가 1, 94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에서가 피곤하여 들에서 돌아와 동생 야곱에게 말하기를

◎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라.

○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줘서 그가 먹고 마셨으니

◎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 아 멘 -

찬 송 : 88 ( 새 찬송가 88 )

기 도 : 목 사 (다음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창세기 25 : 24 ~ 34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명분의 존귀함과 그 축복을 알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41 ( 새 찬송가 202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 축 도 : 박병길 목사

### 섬기는 사람들 [ 3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릴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박선옥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기 도 : 이미숙 집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

사 회 : 김소영 집사 (다음 박정빈 집사)

기 도 : 이성희 집사 (다음 류정희 권찰)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남 녀 각 전 도 회 모 임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예전대로 각실에서

남 녀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 2. 화 요 전 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즐거운 찬양, 진정한 기도, 은혜의 말씀, 말씀의 실천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4. 금 요 기 도 회

3월 22일 금요 밤 기도회는

4 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재덕 윤안숙 님

쌍촌동 명지 @

☺ 주진영 님

중흥 @

☺ 김영희 님

풍암 주택

## 본문 말씀 요약 ( 3 / 24 ) 2013

제 목 : 내 원대로 마옵시고

성경말씀 : 마태복음 26 : 36 ~ 46

예수님께서 죽으실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순조로운 죽음도 애석한 일인데, 온 인류의 죄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진정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겔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한 곳에 머물러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신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의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의 살과 뼈와 피와 신경과 세포를 가지셨다.  
즉 우리가 주사 바늘에만 찔려도 피가 나고 아픔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신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죄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리고 찢기는 아픔을 당하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신다.  
이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고민과 고통이 그 얼마나 크시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이 당할 고통의 극심함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시다면,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시므로 자신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순종은 ?

첫째,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귀하게 여겼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 한다.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합리화시키며 감히, 하나님의 뜻,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나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 소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루려고 분투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예수님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존귀하고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좋음을 알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버림당하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찢기는 아픔으로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맘을 다 바치신 것이다.

둘째, 자신의 뜻보다 사명을 더 존귀하게 여겨 감당했다.

예수님은 이름의 뜻까지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주시라” 하여 모든 인류의 죄 값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할 사명을 받으셨다. 한 두 사람의 죄 값, 그 형벌도 무거운데 온 천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값의 벌을 담당하시는 일이니 그 형벌의 무게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시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과 마음의 고통이야 어떻게 되든지,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주”로의 사명과 그 존귀함과 위대함을 알고, 그 일에 자신의 몸과 맘을 희생시키신 것이다.

셋째, 자신의 뜻보다 사랑을 더 존귀하게 여겨 이뤘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무감이나, 그로 인한 자신에게 돌아올 명예나 영광을 얻으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하여 그 쓰라린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형벌을 달게 받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겨 이루어 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몸과 맘을 희생하여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가는데 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94 ( 새 찬송가 2, 96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 기도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되

○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 아버지여 !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 가자 !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 아 멘 -

찬 송 : 142 ( 새 찬송가 148 )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26 : 36 ~ 4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36 ( 새 찬송가 147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 섬기는 사람들 [ 3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일 오후 예배 ( 오후 2시 ) 바울회 헌신예배

사 회 : 백원덕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기 도 : 강동원 권찰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요 저녁 예배 ( 저녁 7시 )

사 회 : 박정빈 집사 (다음 이경순 집사)

기 도 : 이선화 권찰 (다음 김영복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한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회 소식 \*\*\*\*\*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바울 남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 2. 고난 주간.

금번 주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죄악과 타락된 문화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되기를 바랍니다.

① 특별 새벽기도 제단 쌓기.(부활주일 새벽까지)

② 성경 누가복음 읽고 묵상하기.

③ 금요 밤 8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④ 마음청소 교회대청소, 30일(토) 오전10시부터 ~ .

⑤ 한 끼 이상 금식하기.

###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부활절 준비와 감사예배.

31일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값을 담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① 세례와 성찬예식이 거행됩니다. (경건한 삶으로 준비)

② 세례 받을 분은 25(월) 26(화) 밤7:30분 교육 있습니다.

③ 30일(토) 오후4시 세례 받을 분 문답시험 있습니다.

④ 오후 예배 후, 2부 축제순서  
누가복음 성경퀴즈, 남녀 각전도회별 찬양경연 있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영진, 혜린 세연 님

모아 @

☺ 노찬호 님

명지 @

☺ 류순임 님

풍암 주택